

LS마린솔루션 (060370)

| Company Issue Brief | 유틸리티 | 2026. 4. 28

안마해상풍력 계약 해지 관련

| Analyst 성종화 | jhsung@ls-sec.co.kr

안마해상풍력 시공사업 수주계약 해지 공시

- ▶ 전일(4/27 월) 종장 후 안마해상풍력 Project 수주계약 해지 공시
 - ▷ 발주처인 안마해상풍력(주)의 계약 해지 통보
 - ▷ 외부망 LS전선 턴키 수주 2,550억원이었음(케이블 1,610억원 _LS전선, 시공 940억원 _LS마린솔루션)
 - ▷ LS마린솔루션은 안마해상풍력 PJT 관련 27-28년 반영 예정이던 940억원의 해저케이블 외부망 시공 매출 제외 영향

안마해상풍력 수주계약 해지 자체는 부정적 뉴스

- ▶ "27-28년 940억원 정도 안마해상풍력 해저케이블 시공 매출 반영"은 서해안 HVDC PJT와 비교 시 Main 모멘텀은 아니지만 신안우이 PJT와 더불어 27-28년 실적성장을 견인할 의미 있는 포인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 자체는 부정적 뉴스

핵심인 서해안 HVDC PJT, 신안우이 PJT 등 건재. 기본 방향성 유효

- ▶ 시공 매출 기여도 면에서 안마 PJT보다 큰 신안우이 PJT가 건재하고, 무엇보다 핵심인 서해안 HVDC PJT의 폭발적 성장잠재력 감안 시 중장기 고성장 방향성 유효

안마 PJT 계약 해지 영향은 다른 PJT로 메이크업 예상

- ▶ GL2030 4,000톤급에서 7,000톤급으로 곧 증설 완료, 하반기 투입 예정. 안마 물량 공백은 국내 다른 PJT 중 규모가 큰 것, 아시아권 해외물량 대응 등으로 당초 전망치 대비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주가는 단기 영향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최상위 모멘텀인 서해안 HVDC PJT 기대감으로 금방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

- ▶ 중단기 주요 모멘텀 중의 하나의 상실로 주가는 단기 영향은 불가피할 수도
- ▶ 그러나, 최상위 모멘텀인 "서해안 HVDC PJT 기대감"으로 금방 안정화될 기대
 - ▷ 서해안 HVDC 1단계(새만금-서화성) 사업자 선정이 상반기내 목표라는 점 주목 필요
 - ▷ 일정은 다소 연기될 수 있는 변수는 있으나 1단계 PJT 완공 목표 기한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겨진 상황 등 감안 시 전체 PJT의 첫걸음인 사업자 선정 일정이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

Buy (유지)

목표주가 (유지)	41,000 원
현재주가	39,150 원
상승여력	4.7 %
시가총액	20,452 억원
KOSDAQ (4/27)	1,226.18 pt

Stock Dat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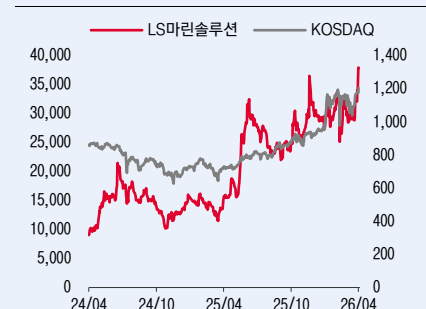
90일일평균거래대금	109.74 억원
외국인 지분율	3.6 %
절대수익률(YTD)	30.7 %
상대수익률(YTD)	-1.8 %
배당수익률(26E)	0.4 %

재무데이터

(억원)	2024	2025	2026E	2027E
매출액	1,303	2,442	2,901	4,607
영업이익	124	70	115	499
순이익	132	84	137	429
ROE (%)	8.0	2.0	2.1	6.3
PER (x)	36.6	187.2	149.2	47.7
PBR (x)	2.3	2.5	3.1	2.9

주: K-IFRS 연결 기준
자료: LS마린솔루션, LS증권 리서치센터

Stock Price



LS마린솔루션 목표주가 추이		투자이건 변동내역										
(원) 				과리율(%)								
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	일시	투자 의견	목표 가격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
	2026.04.07	신규	성중화									
	2026.04.07	Buy	41,000									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성중화).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이건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-15% 이하 기대	89.3% 10.7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이건 비율은 2025. 4. 1 ~ 2026. 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